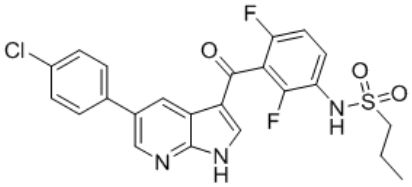
흑색종 치료를 위한 표적항암제

[연구자책임자] 오 창 현 박사

기술 개요

- 필요성: 현재 세계적으로 효능이 우수하면서 부작용 없는 흑색종 치료제가 전무
- 흑색종 관련 FDA 승인된 치료제는 Vemurafenib 한 개 뿐임
- 본 기술은 화합물들은 Vemurafenib 보다 더 효능이 우수함

흑색종 글로벌 신약 1호 (B-Raf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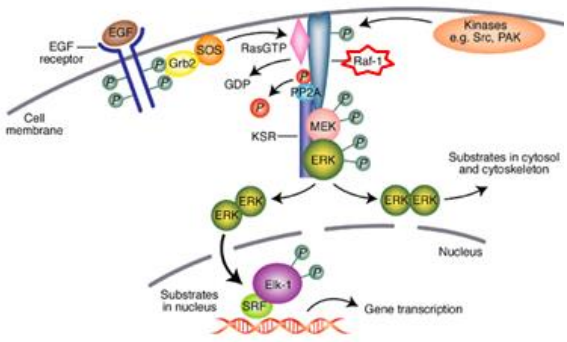
Vemurafenib (PLX4032, Zelboraf)

Developed by Plexxikon and Genentech

기술의 특장점

- 비근침윤성 흑색종에서 항암 화학약물(intravesical chemotherapy)을 주입하여 피부내 잔존하는 암세포를 파괴하는 효과가 기대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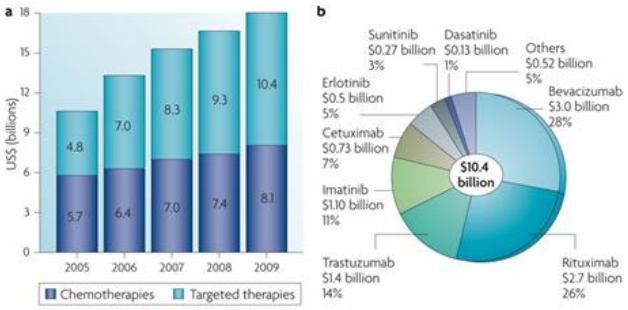
B-Raf Kinase 작용점



Expert Reviews in Molecular Medicine ©2002 Cambridge University Press

적용분야 및 시장

-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4명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여 한국인의 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(2002년 통계청 자료), 암의 발병률은 환자의 연령증가와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 고령화 사회와 서구화된 식생활, 환경요인 등에 의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음.
- 항암제 시장의 고성장률: 항암제의 세계시장규모는 2003년도 330억달러 규모로 향후 매년 약 10% 정도의 성장을 나타내어 2009년에는 약 600억달러 규모의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이며, 발병률의 증가와 함께 유병률의 증가로 인하여 항암제 시장의 성장이 예측됨.
- Gleevec(Norvatis), Herceptin(Genentech/Roche), Iressa(Astrazeneca) 등 새로운 기전의 신규 항암제가 상품화되어 기존시장이 아닌 신규시장을 창출함으로써 항암제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. 분야별 시장전망을 살펴보면, 화학요법제 및 항호르몬제는 특허만료와 더불어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나, 표적치료제는 신규제품 개발로 꾸준한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.



Nature Reviews | Drug Discovery

대표 특허 정보

명칭	국가	출원번호
출원중	KR	-